



## 제3회 인제청년상

# 우수상

건축과 장소, 잃어버린 '우리'를 이야기하다

- 공간이 기억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서 -

김 종 학

## 건축과 장소, 잃어버린 ‘우리’를 이야기하다

-공간이 기억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서-

### 1. 서론

8월 중순, 카페에서 두 번째로 만난 이탈리아 제노바 주 출신인 Francesca Capurro(19)는 입국 당시의 들뜬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간의 만담을 늘어놓았다. 지난주 서울에 들어와 갓 생활을 시작한 그는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을 꾸려 서울로 왔더란다. 앞으로 몇 개월간 서울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들뜬 마음에 입국 당일부터 당장 서울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특히 남산에 두 번 오른 점을 강조하며 구구절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 남산에 친구랑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갔어요. 여행책자에는 서울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올랐어요. 밤에는 불빛 덕분에 너무 아름다웠는데, 낮에는 아름다운 걸 딱히 못 느꼈어요. 아무렇게나 자라난 건물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현대적으로는 보여도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 [.....] 우리나라(이탈리아)에서는 고층건물을 보기 힘들어요. 아파트도 기껏해야 6층 정도죠. 그런데 여기는 웬만한 건물들은 전부 10층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은 정말 현대적이기는 해요. 다만 아쉬운 건, 도시 어디를 봐도 한국적인 느낌은 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 느낌은 궁 같은 유적에서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건축물들이 전부 오래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외형을 유지한 터라 어디를 가더라도 이탈리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말이죠.”

그의 말에 필자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고작 일주일 만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해한 것이다.

20세기, 일제 치하와 연이은 민족 분단의 비극은 한민족을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폐허가 된 영토에서 한민족은 재기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국토의 재건이란 명분 아래 건설 산업은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이 건설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시의 복원을 이룩하려는 우리에게 역사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은 그저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도시계획에 대한 그 어떠한 법적인 규제나 지침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1970년대 유신 정권은 도시의 형성에서 차량의 소통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서울 전역에 대대적인 도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도시는 선이다’라는 명목 아래 예부터 형성된 도로망을 모조리 밀어내고 획일적인 형태의 도로를 건설하였다. 과거의 유산은 불도저와 굴착기에 의해 사라지고 그 위에 ‘현대’라는 형상이 우뚝 섰다.

현재 우리는 안팎으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국가라는 평을 받는다. 필자는 서울의 이 ‘현대성’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가 지난 50여 년 간 이 도시에 세운 것은 무엇인가? 도시를 ‘현대의 도시’로, 이 도시를 건설한 우리를 ‘현대인’으로 명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우리가 분명 ‘현대’를 가장 완벽하게 형성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를 ‘한국인의 도시’, 이 도시를 건설한 우리를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늘을 가리는 마천루와 거미줄 같이 그어진 도로망을 보며 우리는 이를 ‘한민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다. 우리는 분명 현대성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의 과거를 콘크리트로 봉인해 버렸는데 말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먼저 ‘민족’과 ‘과거’에 대한 의미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경험과 지식, 문화, 사상 등에 기반을 둔 감정과 기억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시간에 존재하는 특정한 집단이 지닌 이러한 감정과 기억의 집합체를 우리는 특정 시대의 ‘정서’라고 한다. 이 특정집단을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어 형성된 하나의 총체적 덩어리는 바로 ‘민족의 정서’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지리적·유전적 차이 등 자연과학적 요소를 배제하였을 때 집단과 민족을 분류하는 잣대는 오직 이 ‘민족의 정서’의 차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가령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는 장시간 형성된 ‘한민족의 정서’와 ‘중화민족의 정서’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우리는 ‘민족의 정서’를 ‘민족성’, 혹은 ‘민족’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과거는 어느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민족의 정서’, 혹은 ‘민족’이 형성된 ‘시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은 이론적으로 무한한 시간동안 끊임없이 형성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민족의 정서’를 이루는 미시적 개념인 개인의 기억과 감정은 형성 과정에서 대내적 조건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 그 조건은 과학 기술의 발달, 지리적 요건의 변화, 새로운 사상의 탄생 등 다양하며 이는 기존의 ‘정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서’를 탄생시킨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족’은 필연적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인간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논리이다. 개인 또한 일련의 시간에 따라 축적된 기억과 감정의 총체적 덩어리다. 개인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사건-예컨대 새로운 학문을 접한다든지 따위의-으로 인하여 변화를 거듭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겪는다고

그 개인이 다른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 가령 ‘철수’가 학교를 가서 지금껏 모르던 예절을 배운다고 ‘영희’라는 다른 인물로 변하지는 않는다. ‘철수’는 단지 ‘예절’을 통해 새로운 기억과 감정을 축적하며 진화할 뿐이다.

현대, 만약 이 변화가 존재의 근본적 의미 자체를 바꿔놓으면 어떨까? 앞서 ‘민족’은 유구한 시간 내에서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 간 우리는 지나치게 급격한 현대화와 ‘변화’를 추구한 결과 과거를, 더 나아가 과거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온 ‘민족’ 자체를 망각하였다. 수 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민족’이라는 정서는 형성 이래 처음으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즉 ‘한민족’은 급속한 개발 속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잠식당한 것이다. 대신 그 위에 ‘현대인’이라는 전혀 새로운 정서가 50년의 시간 동안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닌 ‘현대인’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갈 뿐이다. 이는 곧 우리가 이미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뿌리가 얇은 나무가 쉽게 흔들리듯이, 수천 년 동안 보전되던 민족의 기반을 잃은 우리 사회는 결과적으로 단일성을 잃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의 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 과거로의 전적인 회귀라는 극단적 방법만이 답일까?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과학의 발전을 통해 향상된 삶의 질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과업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과연 달성될 수는 있을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는 건축과 장소라는 공간적 요소를 위주로 현대사회 속에서도 ‘민족’을 계속 유지하는 이상적 사례를 찾아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여 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비교대상으로부터 근본적 해결책을 도출하고, 이를 갖대로 활용하여 우리의 건축 및 장소의 실태와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이다. 더불어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가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 2. 본론

### 2-1. 건축과 장소에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다

혹자는 과거와의 화해라는 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어떻게 ‘건축’과 ‘장소’라는 공간적 개념과 연계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과 ‘장소’를 화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해 먼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민족의 정서’, 혹은 ‘민족’을 각 시대의 ‘정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다. 이 ‘정서’는 단순히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내재되어있지 않고 타인, 혹은 사물과의 소통을 통하여 그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의식주 문화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고 관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필연적으로 개인 혹은 집단과 연관이 깊은 개체일 수록 이 ‘흔적’ 또한 뚜렷하게 이 개체에 남을 것이다. 그

렇다면 개인과 가장 관계가 많은 개체는 무엇인가? 바로 개인이 상주하는 공간적 영역, 즉 장소와 건축이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공간적 영역에서 형성되어 유지된다. 사람은 주어진 공간적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이 공간적 영역 자체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즉,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공간적 영역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항상 다양한 형태-가령 주거의 형태, 동선의 형태, 종사하는 직장의 형태 등-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곧 과거의 정서가 남긴 '흔적'이 바로 공간적 영역, 즉 건축과 장소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장소와 건축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인류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소와 건축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에 적합한 기준임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적합한 비교 대상을 물색하여 우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이때 이 비교대상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적·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정반대의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 대상'을 찾아낼 때,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실태를 단순히 특정한 경제적·역사적·사회적 요소의 불가피한 산물이기 때문에 현재와 다른 결과는 불가능했다는 사뭇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스스로 배제할 수 있다. 보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철수'는 왜 거짓말을 잘하는가?"라는 명제를 비교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였을 때 어릴 적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영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 결코 '철수'가 거짓말을 잘하게 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난한 환경 자체 때문인지 혹은 잘못된 성격 때문인지 가려낼 수 없다. 따라서 '철수'는 본인과 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정직한 '민규'를 그 비교대상으로 삼아 해석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와 확연히 다른 역사적·사회적 변동기를 겪은 국가들, 예컨대 영국이나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와는 역사적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공간적 개념 안의 건축을 상호 비교할 수는 있더라도 단순히 과거사의 차이를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를 초래할 수 있다.

## 2-2. 이탈리아; 낮은 나라에서 해답을 찾다

필자는 이에 가장 적합한 비교대상으로 이탈리아를 지목한다. 비교적 타 국가에 비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아 우리에게 비교적 낮은 국가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여느 국가보다 20세기 사회적·경제적·역사적 배경이 우리와 사뭇 유사하다. 1861년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피에몬테 왕국이 이탈리아 왕국을 공표하고 이후 1870년 국가를 통일하기 전까지 이탈리아는 근 1500년 동안 사회 및 경제구조가 제각각인 독립적인 세력들로 분리되어 있었다. 특히 반도의 남부지역은 나폴리 왕국이 당시까지 봉건주의에 입각한 통치체제를 유지하였으며 당시 유럽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농업에만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갖 형성된 이 통일국가는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지역분쟁과 내란을 겪었으며 나폴리 이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영토가 낙후된 상태였다. 덧붙여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는 원천적으로 내장된 자원의 양이 현저히 한정되어있어 독립된 형태의 성장이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군사력의 제한으로 이어져 당시 프랑스와 영국과 같이 해외 식민지를 형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이탈리아는 1922년 무솔리니를 선두로 한 파시스트 정권이 집권하였으나 1943년 연합군과 독일 군이 격돌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sup>1)</sup>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결국 이탈리아 전역에서의 본격적인 공업화가 실질적으로는 1950년 대 이후에서야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탈리아는 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늦으면서도 짧은 시기에 공업화를 이룩한 것이다. 덧붙여 통일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상당한 인구의 증가 및 이동이 있었다. 이는 대체로 낙후된 남부에서 북부로, 외지에서 도시로의 양상을 띠었다.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1951년 11월 4월에 측정된 로마의 인구수는 2,150,670여 명으로 이는 1936년에 측정된 인구수 1,562,843 명보다 약 37.6% 증가한 숫자이다. 이후로도 10년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1961년에는 29.0%, 1971년에는 25.8%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sup>2)</sup>

이상을 요약하자면 이탈리아와 우리는 자원의 부족과 열악한 경제 수준, 그리고 전쟁에 의한 막대한 피해와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급격한 속도로 이룩된 공업화, 그리고 20세기 중후반 도시 인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상당히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슷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우리와는 상반된 결과를 이뤘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 원인을 고찰할 때 역사적 및 사회적 요건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불가항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라는 비교대상이 한국과는 달리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려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건축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 21세기의 그들은 어떻게 “이탈리아인”이라는 민족성과의 연계성을 잃지 않고 현재까지 삶의 일부분으로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건축과 장소 안에는 과연 어떤 정서가 내재되어 있을까?

이탈리아 건축 및 도시설계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역사적 유물 및 장소의 중요성에서 시작된다. 로마 제국부터 르네상스의 시발점까지 ‘유럽의 뿌리’가 창조된 지역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탈리아 영토 전역에 산재된 유물들의 존재, 이러한 환경에서 장기간 형성된 역사적 정서, 그리고 신생국가로서 분열된 국민들에게 새로운 애국심과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 과거 찬란한 영광의 역사의 증거를 의도적으로 보전하려는 정치적 성향은 이탈리아만의 독특한 건축문화를 낳았다. 이러한 정서는 곧 이탈리아의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Genius Loci’로 결부되었다. ‘Genius Loci’란 ‘특정 장소가 가진 영혼 및 정신’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로, ‘모든 장소는 인간과 같이 고유의 신성한 영혼을 가진다.’라고 믿었던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사상에서 유래했다. 이

1) 이탈리아 전역의 주거시설 중 약 17%가 파괴되었고 6%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2) 출처: tuttitalia.it



‘영혼’은 특정 장소에서 인간이 갖는 특정한 추억, 기억 및 감정이 총체적으로 혼합되어 그 의미를 가지며 유지되는 동시에 완전해진다.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우리 본연의 영혼과 사뭇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개인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졌으며 고귀하고 신성하다. 이 영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추억, 지식의 습득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유지되고 발전하며 본연의 독자적인 ‘신분’을 형성해나간다. 이 ‘신분’은 당연하게도 개인에 따라 다르며 형성 과정 또한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가장 본질적인 개념, 즉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무한한 시간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하나의 ‘신분’을 만드는 것, 즉 ‘영속성’을 의미한다. 한편 이 ‘영혼’이 담긴 장소를 전문용어로 ‘luogo’라 칭한다. luogo는 본래 이탈리아어로 ‘장소’를 뜻하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역사, 그 안에서 타 장소와 사람들 등 특정한 대상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신분’이 있을 경우만을 지칭한다. 이 luogo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장소로부터 특별한 ‘기억’과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 뒷산에 영험하다고 소문난 바위가 있다고 해보자. 마을사람들은 소싯적부터 공공연하게 이 산에 올라가 바위에 소원을 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을사람들은 뒷산이 ‘신성한 장소’라는 ‘기억’과 ‘감정’을 지니게 된다. 이 ‘기억’과 ‘감정’이 장시간 이어지면 바로 이것이 ‘Genius Loci’이며 곧 뒷산은 마을사람들 고유의 ‘luogo’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luogo’는 어디까지나 시간의 흐름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 뒷산과 연관이 없는 외지인에게는 이 뒷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뒷산을 돌연 깎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컨대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가정하자. 이제 그 장소는 마을사람들의 그 어떤 ‘기억’과 ‘감정’과도 관계가 없는, 그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를 인류학자 Marc Auge는 ‘non luoghi’라고 칭하였다. 더 이상 이런 장소는 luogo라고 명명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말한 인간에 비유하면 갑작스레 영혼을 교체해 버린 꼴이다. 이는 다시 말해 ‘Genius Loci’가 지켜지지 않고 소멸함을 뜻한다.

세계대전의 혼돈 속에서도 이탈리아에서는 이 ‘Genius Loci’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유물과 환경, 도시 형태 등의 보전과 무분별하고 급격한 변화의 제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형성된 법은 1865년 제정된 Regolamento Edilizio(번역으로는 건설규정지침서라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개념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하 모든 규정안에 관해서는 번역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와 Regolatore Edilizio였다. 전자는 도시의 영속성에 기반을 둔 미적가치, 안전성, 위생 등에 관련된 규율을 내포하고 있었고 후자는 당시 존재하던 도심의 보수를 일정한 제한 안에서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법률들은 실질적으로 파시즘 치하 시대까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29년 로마에서 ‘주거 및 도시설계 국제 연맹(이하 IFHT)’ 회의가 개최된 이후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도시설계를 위해 Istituto Nazionale di

Urbanistica(INU)가 설립되었다. 동시에 도시설계가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고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학 과정에도 정식으로 개설되는 등 전문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후 1942년 INU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데, 그 중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Piano Regolatore Generale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지역에 대한 전격적인 보호정책이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 즉 luogo의 Genius Loci를 보존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이 법안은 지정된 도시와 지자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설계가 및 건축가는 규정에 맞는 건축설계를 반드시 지자체 의회에 제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물론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라도 의회에 이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의회는 모든 의문과 의견을 고심하고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건축가와 의회 자체가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철저히 공공의 뜻에 의한 계획만이 수립될 수 있음을 뜻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와 급격한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재정부족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해결책으로 지방 단체로의 권력 이양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Genius Loci를 유지하며 급진적 개발을 방지하려는 정치 성향을 보였다. 1967년 중앙정부는 종전 이후 가장 획기적인 계획 법률안 번호 765를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특정한 계획 또는 건설을 책임진 자치체가 기존의 법률인 Piano Regolatore Generale의 기준에 적합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제한날짜를 명확히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을 대신 구상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다. 즉, 이 법안은 도시 계획에 관하여 지자체로의 권력 이양을 확실시하면서 동시에 Genius Loci의 보존을 위한 규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규정에 어긋나는 건축물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보다 확실시하였다. 이때 ‘규정’은 국가가 제시한 구체적인 법안을 뼈대로 지역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정된다. 가령 피에몬테에 위치한 토리노 시에서는 도심 내에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인 몰레 안틀레아나(167.5m)보다 높은 건물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당연히 이 건축물이 토리노 시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시가 균일하고 질서정연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인 것이다.

이 이탈리아의 도시설계와 건축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Genius Loci의 보존을 위하여 이탈리아가 시도한 현실적인 대안을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도시계획에 관하여 강력한 법적 규제 및 제재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소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형태가 아닌, 다수의 의견이 통합적으로 반영된 ‘공익’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둘째, Genius Loci가 존재하는 특정한 luogo를 보호하며 그 의미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보전’의 법칙이다. 셋째,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전문



적 지식 습득의 중요성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탈리아의 건축에 담긴 고유한 정서와 이 정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도출된 결과를 비교대상으로 사용하여 우리 스스로의 실태를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직시하고 고찰해 볼 것이다. 이제부터 이 ‘잣대’를 사용하여 서울의 단면을 살펴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한 ‘한국의 Genius Loci’, 즉 ‘한국인’이라는 정서의 현실을 되돌아볼 것이다. 이어 과연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이 존재하는지 또한 고찰해볼 것이다.

### 2-3. 동대문과 밀라노; 과거와 현대는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지하철 동대문 역 9번 출구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 먼저 단아하면서도 웅장한 홍인지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도 잠시, 홍인지문을 중심으로 나돌아 다니는 수백 대의 차량과 느닷없이 솟아오른 마천루들은 곧 홍인지문을 잠식시키고 혼돈과 무질서의 이미지로 사방을 물들인다. 마치 소용돌이에 갇혀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홍인지문은 위태롭고 초라하게 보인다.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바로 뒤에는 거대한 패션광장이 청계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사뭇 지저분하고 답답한 느낌으로 가득한 길을 따라 오간수교를 건너면 다시 거대한 마천루 사이로 동대문역사공원이 주위를 휘몰아치는 도로에 의하여 고립되어 있다. 소위 쇼핑문화의 주역이라는 거대건물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정원의 잡초마냥 무분별하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문화의 산물임을 스스로 입증이라도 하듯 주변과의 조화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그 아래 밟혀 희미해져가는 홍인지문의 숨결을 찾아 발걸음을 움직여보지만 이를 유일하게 기억하는 공간은 공원 내 위치한 자그마한 동대문역사박물관뿐이다.

2002년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로 홍인지문 주변에는 패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여러 패션관련 기업이 터전을 잡고 우후죽순처럼 자라났다. 동대문관광특구 홈페이지는 당연하다는 듯 패션에 관한 정보로 가득 찼다. 패션문화의 급격한 성장은 대외적으로도 유명해져서 ‘서울에 가면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자’라는 정보는 여느 여행책자에나 다 수록되어 있다. 이 안에서 14세기부터 도성의 가장 중요한 대문 중 하나였던 홍인지문은 고립되어 잊혀졌다. 이제는 마치 패션이라는 문화의 장 안에서 느닷없이 세워진 낯선 건물같이 느껴질 정도다. 홍인지문은 이제 단순히 쇼핑의 중심지에 세워진 역사유적일 뿐이다. 그것이 홍인지문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추억과 감정이다. 홍인지문이 과거부터 형성해온 영혼, 즉 Genius Loci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전혀 새로운 영혼이 홍인지문을 잠식하였다. 즉, 앞서 말한 ‘현대인’의 오만하고 급진적인 영혼이 ‘한국인’의 정서를 완전히 압도한 것이다. 건축에 담긴 ‘한국인’의 영속성과 정체성은 그저 우리 ‘현대인’의 사리욕구와 잘못된 인식으로 몇 평 남짓의 자그마한 땅에 초라하게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할 뿐이다.

혹자는 현대의 기술 및 경제 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개발을 탓할 수 있다. 물론, 도시의 형성과 발달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가 발달하고 그럼으로써 특정 장소의 변질이 생길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결코 수백 년 동안 존립하며 발달한 luogo의 ‘신분’과 ‘상호관계’를 일시에 제거하고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정당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luogo의 Genius Loci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보전’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함이 옳다.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Genius Loci가 집단 사이에서 결코 잊히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고려해야한다. 이는 곧 앞서 말한 이탈리아의 세 가지 법칙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적 강제성과 보전의 법칙의 필요성을 뜻한다.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시로 우리는 패션의 중심지라 불리는 밀라노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도 우리의 패션광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물이 바로 ‘갈레리아 엠마누엘레 2세’이다. 이 ‘갈레리아 엠마누엘레 2세’는 공교롭게도 밀라노의 중심축이 되는 유적인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다. 우리의 흥인지문의 예시를 고려한다면 이 성당 또한 거대한 쇼핑산업의 여파로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당을 통해 방문객들은 그 자체의 Genius Loci, 즉 밀라노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광장, 찬란한 역사의 반증 및 르네상스와 고딕 문화의 접견지역이라는 그 자체의 ‘영혼’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의 비결을 일부 나열하자면 첫째, 일체 인과만 통행할 수 있는 광장의 보전이다. 사람들은 차량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성당 주변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만남을 가지기도 하며, 성당의 웅장한 풍채를 곳곳이 감상할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은 이 곳에서 개인 간, 집단 간, 그리고 궁극에는 장소 자체와 특정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광장은 따라서 사람들이 성당에서 특정한 ‘추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평온하고 아늑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한다. 둘째, 성당 주변을 비롯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 전체의 건물들은 과거의 외형을 보전하여야 하는 규제이다. 이는 즉 성당의 Genius Loci는 단지 성당 자체만이 아닌, 전체적인 공간적 구성의 보전을 통하여 유지됨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갈레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또한 무분별한 증축과 발전이 엄격히 통제된다. 1861년 시초부터 쇼핑몰로서 계획되어 건설된 이후 내부에 위치한 상점들은 갈레리아 자체의 외향을 무분별하게 개조하는 등 따위의 행위를 일절 하지 못한다.

우리의 흥인지문을 다시 돌아보자. 흥인지문을 주위로 형성된 도로는 개인 간 상호관계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시공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는 쇼핑 문화는 기생식물처럼 삽시간에 주변을 집어삼켰다. 단순히 유적 자체만을 유지하면 된다는 잘못된 보전 인식과 경제적 이득을 향한 욕구에 의한 규제의 부재가 그 근원인 것이다. 특히 전자는 우리가 역사적 연속성, 즉 지금까지 누누이 언급한 ‘한국인’의 Genius Loci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고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서 논의한 Genius Loci는 분명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그 장소에서 갖게 되는 추억과 기억 및 감정이 총체적으로 혼합되어 형성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이 특정 장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이

Genius Loci가 보전됨과 동시에 발전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영험한 바위가 있는 뒷산이 그 본연의 Genius Loci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대를 이어 마을에 거주하며 뒷산과의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상호관계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Genius Loci가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이 본질의 변화는 결코 급진적으로 생길 수 없으며 변화된 상호관계 또한 차근차근 축적되어 오히려 성숙한 Genius Loci를 생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가령 시간이 지나 영험한 바위가 그 신성함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뒷산은 계속 마을사람들에게 든든한 대들보로서의 추억과 감정을 전달할 것이다. 밀라노 또한 마찬가지다. 밀라노 성당이 존립하던 시기의 생활양식은 이제 완전히 변모하였다. 그렇다면 과거의 가치를 잃은 밀라노 성당 또한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서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Genius Loci의 형성과 변화는 순전히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인간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밀라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밀라노 성당과 상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Genius Loci를 다듬는 것이다. 이 Genius Loci는 밀라노 시가 강력한 법안으로 주변부의 급진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동안 사람들에 의하여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로써 밀라노 성당은 영원한 luogo로 남을 수 있으며 역사 속에서의 영속성을 지킬 수 있다. 곧, 밀라노의 ‘현대인’들은 ‘밀라노인’과의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인’과의 화해, 즉 우리의 ‘Genius Loci’를 다시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동은 자명해진다. 우리 또한 급진적인 개발을 자제하고 역사적 유적과 사람들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 물론 흥인지문 인근에 형성된 쇼핑문화를 무조건 철폐할 방법은 없다. 그 자체로도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로 인한 Genius Loci가 생성될 것이다. 다만 이 공간에 법적 제한을 두어 더 이상 흥인지문의 Genius Loci가 잠식되는 현상을 막고, 사람들이 흥인지문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반대로 말해 우리들 또한 역사적 장소와 유적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Genius Loci가 내포하는 본연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형성하는 주체는 장소 그 자체가 아닌, 바로 이 특정 장소에서 ‘추억’과 ‘감정’을 얻으며 소통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한국인’의 Genius Loci를 복원하는 데 장소와의 소통을 통한 상관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관관계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형성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이탈리아가 시도한 세 번째 대안, 즉 교육의 필요성이다.

#### 2-4. 창덕궁; 완전한 화해를 위한 고찰

안국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어느 정도 걷다보면 금세 눈에 띄는 창덕궁은 경복궁과 함께 서울 내 가장 유명한 궁궐로 손꼽힌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

정된 이 궁은 해마다 146만 여 명<sup>3)</sup>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단체 견학으로 온 학생들도 적지 않으며 데이트를 하러 가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창덕궁 특유의 한적함과 편안함을 찾아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 제각기 다른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는 만큼 창덕궁에서 얻는 감정과 추억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장소의 Genius Loci는 모든 사람의 감정과 추억의 총체적 혼합을 통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개인이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과거로부터 유지된 Genius Loci가 급격하게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개인과 장소와의 상호관계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본적 해결책으로 우리는 앞서 강력한 법적 규제 하의 보전을 언급하였다. 가령 우리는 창경궁이 과거 조선의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창경궁의 모든 시각적 요소, 예컨대 기와, 초석, 보와 도리 등이 그 증거이다. 만약 이 장소에, 예컨대 공연장이 지어졌다면 과거 창덕궁의 존재는 우리에게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창덕궁은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 이는 곧 밀라노 성당의 ‘광장’과 같은 역할, 즉 개인이 장소에게서 추억과 감정을 느낄 시공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창덕궁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 안에서 장소와의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창덕궁은 아직도 그 Genius Loci를 내재할 수 있다. ‘화해’가 얼추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긴다. 만약 현대적 가치가 과거의 Genius Loci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복원 및 보전이 이미 불가능해진 지역에서는 어떻게 과거의 Genius Loci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이미 보전이 이루어진 장소에서도 Genius Loci가 급격하게 변질되지 않고 이상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앞서 창덕궁의 모든 표면적 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영혼’을 형성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창덕궁이 ‘궁궐’이었음을 자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요소를 통하여 얻는 감정과 추억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각 요소에, 각 건물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특정 장소에 내재된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축적된 과거의 추억과 감정, 즉 Genius Loci는 결코 단번에 쉽게 전달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깨닫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역사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Genius Loci 또한 복잡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시 창덕궁을 고찰해보자. 창덕궁은 단순히 궁이라는 사실 말고도 다양한 역사의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별 다른 지식이 없이는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예를 들어 구한 말 급격한 근대화와 외세의 압박 속에서 제국으로서의 한민족의 정서를 지키려 노력했던 애환의 ‘이야기’가 내재되어있다는 사실을 방문객들은 쉽게 느낄 수 없다. 인정전 내부의 서양식 전등과 커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정전의 용마루에 새겨진 오얏꽃 문양이 대한제국의 상징이었다는 점과 회정당 정문의 낮은 내리막길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관람을 한다고 해서 쉽게 알아차릴 수

3) 월평균 12만 1580여 명(2012년 기준), 출처: 창덕궁 관리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창덕궁과의 상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배제하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 기존의 Genius Loci와는 조금 동떨어진 감정과 기억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단순히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반드시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이 논제는 사실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역사의 전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부하면서도 내가 소통하며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장소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장소와 건축이 내재한 중요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올바른 Genius Loci의 형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통을 이룰 장소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보다 알찬 정보의 제공, 그리고 정보 습득의 용이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 2-3. 포천 아트밸리;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었다.

필자는 앞서 우리의 실태를 조사하며 비교론적 접근방식으로 과거와의 이상적인 화해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내에 Genius Loci의 적합한 복원 및 보전이 이루어진 luogo가 존재할까? 장소와의 상호관계가 다시 복구되어 유지되는, 즉 ‘과거’와의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룬 이상적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존재할까? 필자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적합한 예시로서 포천 아트밸리를 제시한다.

포천시청에서 약 30여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어느새 민가는 거의 사라지고 아늑한 산길에 접어든다. 아트밸리는 이 산길의 끝자락에 다소곳이 자리를 잡고 있다. 1960년 대 후반부터 이 지역은 수도권 건축 산업에 사용되는 석재가 생산되던 주요 채석장 중 하나로서 개발이 진행되다가 2003년 아트밸리로 탈바꿈하였다. 가장 먼저 입구에 들어서면 자그마한 돌 문화전시관이 있다. 이를 관람한 후 옆에 위치한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며 주위를 관망하면 폐채석장의 흔적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종착지에서 내리면 주말마다 소규모의 공연이 열리는 자그마한 공연장이 위치한다. 또한 길을 따라 얼마정도 걷다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천주호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화강암을 채석한 지역에 유수가 유입되어 형성되었다는 이 호수는 여느 계곡보다도 물이 맑으며 다양한 생태종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워지지 않는 상흔처럼 깊고 가파르게 파인 골짜기에 천주호는 마치 편안한 쉼터와 같은 존재로 다가온다. 이 때문인지 사람들은 천주호 앞에서 좀처럼 떠날 줄 모른다. 춘천호 인근에는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으며 그 너머로 인상 깊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조각공원이 위치한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를 다 둘러보면 아트밸리를 얼추 다 관람한 셈이다.

우리가 아트밸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Genius Loci의 복원과 형성 과정이다. 60년대 채석장의 형성은 분명 이 장소가 가지던 기존의 ‘영혼’을 잠식시켰다. 40년



간 산업화가 균림한 자리는 결코 과거로 완전히 회귀할 수는 없을 터였다. 대신 우리는 상처로 얼룩진 이 폐해에 잔존하던 ‘현대’의 정서에 그동안 잊혀졌던 ‘자연’의 정서를 혼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연은 다시 천천히 기존의 장소로 돌아왔고 우리는 뒤늦게나마 이를 보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자연에 의해 스스로 형성되어 우리에게 의하여 보호받는 천주호가 그 증거이다. 한편 조각공원과 돌 문화전시관은 ‘돌’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산업화의 역사를 가감 없이 제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를 자각케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장소와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Genius Loci에 보다 근접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이 장소에서 얻는 감정과 추억은 제각기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이 장소에서 무분별한 산업화에 대한 반성을 추억할 것이고 다른 이는 자연의 재생력에 경이로움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감정과 추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궁극적으로 아트밸리의 Genius Loci를 다듬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트밸리는 첫째, 장소의 보전과 소통의 공간적 장(場)의 형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둘째, 지식의 제공으로 개인과 장소의 상관관계를 보다 이상적으로 형성케 한다. 이 두 가지 비결은 우리가 누누이 언급한 이탈리아의 현실적 대안 세가지, 즉 법적 강제성, 보전의 법칙 및 지식의 습득과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아트밸리는 luogo로 다시 변모하였으며 아트밸리의 Genius Loci, 즉 40년 동안 과거의 잔재로서 회미해지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 즉, 과거와의 ‘화해’가 성공한 것이다.

### 3. 결론

지금껏 우리는 ‘과거와의 화해’라는 논제에 대해 꽤 길게 논의하여 보았다. ‘시간적’ 개념의 문제를 어떻게 ‘공간적’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고찰해보았고 우리의 적합한 비교 대상을 찾아 다소 낯선 이탈리아의 건축사상과 개발과정까지 연구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Genius Loci가 우리가 갈구하던 해결책의 핵심임을 깨달았고 이를 갖대로 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도 시도했다. 결국 우리는 건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에 대한 화해가 법적 강제성을 통한 보전과 심층 교육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기반으로 한 장소와의 소통에 있다는 결론에 닿았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는 상식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간단명료하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망각한 채 오랜 시간을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이 답은 이미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미 훌륭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다. 포천 아트밸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단지 이를 자각하고 충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는 시나브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과거와의 화해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에필로그- 창경궁에서 찾은 과거의 목소리

토요일 아침의 적막 너머로 창경궁 명정전 뒤뜰에서 은은한 국악이 흘러나왔다.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한 ‘창경궁의 아침’이었다. 8시가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만 자리는 만석이였다. 춘앵전에 맞춰 무용수가 가락에 맞춰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가 하면 고고한 복장의 대금연주자는 청아한 연주를 선보였다. 가야금과 해금, 대금, 소금, 장고, 거문고 등이 어우러진 분위기에 사람들은 흠뻑 매료되었다.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비단 국악 자체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과거 융성한 역사를 유일하게 기억하는 기와와 대들보가 국악으로 다시금 깨어나 메아리로서 청중에게 회답했다. 국악을 목소리 삼아 궁궐은 우리에게 과거의 정서를 들려주었다. 이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온정신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모두가 현대의 급격하고 복잡한 삶을 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린 옛 정체성을 갈망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악이 끝나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거가 내민 찰나의 손길이 오래 남을 것이다. 그것은 잊고 있던 우리의 기반에 대한 신선함으로, 든든함으로, 이내 그리움으로 기억될 것이다.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를 깨닫고 발걸음을 늦추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이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좇아 뒤를 돌아보는 날, 그날은 바야흐로 우리가 ‘우리’로서의 의미를 되찾는 날일 것이다.

## 참고문헌

### 학술논문

- Scattoni, P., & Falco, E. (2011). Why Italian planning is worth studying. *Italian Journal of Planning Practice*, 1(1), 4-32.
- De Paoli, R. G. (2008). Urban Heritage And Methodologies Of Renewal. *HARS-RSI J-KIIE-R ICR-ZRW*, 141.
- Governa, F. (2010). Competitiveness and cohesion: urban government and governance's strains of Italian cities. *Análise Social*, 45(197), 663-683.
- Ponzini, D. (2008). New Italian perspectives on urban planning: A policy tool approach'. *Planum*, December, 1-31.
- Slongo, C. (2012). *Il genius loci e l'architettura sostenibile: l'ambiente naturale e costruito della Val di Gres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rento).

### 단행본

- 민유기. (2007).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심산
- 양상현. (2005). *거꾸로 읽는 도시, 뒤집어 보는 건축*. 동녘
- Benevolo, L. (1963). *Le Origini Dell'urbanistica Moderna*. Editori Laterza
- Conti, G. (2010). *La Citta del Buon Vivere*. Feschi Editore
- Gelezeau, V. 길혜연 역. (2007).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 Gilmour, D. (2011). *The Pursuit of Italy*. Allen Lane: Penguin.
- Hall, P. 임창호 및 안건혁 역. (1988). *내일의 도시*. 한울 아카데미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Vol. 11). the MIT Press.
- Rossi, A. (1982).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trans. Diane Ghirardo and Joan Ockman.